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3/6/2022

22-11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자) 사순 제1주일
(Vi) 1st Sunday of Lent



2022.02.09
Richard, MA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and was tempted.”

루카 4,1-2 / Lk 4:1-2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3월 / March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니다.

For a Christian response to bioethical challenges

We pray for Christians facing new bioethical challenges; may they continue to defend the dignity of all human life with prayer and action.

사순 제1주일 (다해) / 1st Sunday of Lent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 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When he calls on me, I will answer him; I will deliver him and give him glory, I will grant him length of days.

【제1독서/First Reading】 신명 26,4-10 / Dt 26:4-10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Be with me, Lord, when I am in trouble.

【제2독서 / Second Reading】 로마 10,8-13 / Rom 10:8-13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Glory to you, Word of God, Lord Jesus Christ.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산다 ○

One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orth from the mouth of God.

【복음 / Gospel】 † 루카 4,1-13 / Lk 4:1-13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 로 산다.

One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orth from the mouth of God.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3/6 10am	3/6 3pm	3/8 7:30pm	3/9 10am	3/10 10am	3/11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울리안나, 양헬렌,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블케리아, 이용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채말기 모니카, 변정창 마리아, 신마오로, 김아네스, 조수동, 조원석, 홍희순 카타리나, Charles Angel	Charles Angel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이마리아, 박우슬라 가정, 김소피아 권테오도시오&권아네스 유재숙 카타리나, 박마리아, 윤요세피나, 이디모테오&카타리나					윤요세피나 박마리아 가정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우리들에게 유혹

신앙인 특히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름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사람에 따라 들어나는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들어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첫째, 양식 즉, 먹는 것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동시에 종족번식에 대한 욕구와 같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과 명예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느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유혹의 요소들은 세례를 통하여 실체가 들어난 것으로서 세례가 주는 은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욕구들이 때론 하느님께 다가서는 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동시에 인생살이에 있어서 시련이 닥칠 경우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영'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중 앞서 언급한 '먹는 것의 유혹'과 '현세의 유혹' 그리고 하느님을 부인하게 하는 '의심의 유혹'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은 악마와 싸움을 하시는데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스스로 고난을 겪고 있는 주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이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인간 본성을 봉헌하시는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강력하게 다가온 유혹입니다. 주님은 바로 신명기(8.3)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리라"고 악마를 물리치십니다.

이에 격분한 악마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 주며 악마를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한 신명기(6.13)의 말씀으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악마의 광기를 물리치십니다. 화가 치민 악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럴 듯이 시편(91,10-12)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신명기(6.16)의 말씀으로 "주님을 떠보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그 뒤 악마는 뒷날을 기약하며 사라집니다.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삶의 여정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먹고사는 문제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권력과 영광에 매몰 되면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유혹을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세례를 받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인간으로서 불필요한 유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김대선 신부

Bible Trivia 1001

35. To which city did God ask Jonah to take his message?
36. Who was David's father?
37. Which of gospels appears last in the Bible?
38. What is the only sin that cannot be forgiven?
39. How did David defeat Goliath?

Answers from 2/27 Bulletin

31. Two tables of stone 32. Manger 33. Dust of the ground 34. Washed their feet

Our Temptations

We who got blessed from the Catholic church get into some issues. Those are temptations that have three forms in general. The first temptation is for food or eating, a basic survival instinct. Eating is to maintain our lives and acquire energy. The second temptation is for power and fame. Lastly, there is a doubt about God. After getting blessed, we recognize these temptations, and the recognition reveals the gifts of blessings.

The temptations trouble our way to God. Sufferings in our lives are related to temptations.

In today's gospel, we read the story of Jesus being blessed at the Jordan River,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for 40 days to be tempted by the devil. Devil tries to lead Jesus into temptations: food, power, and doubt. Jesus fights with the devil, and he overcomes the devil with God's words. Note that the devil knows the weaknesses of human beings quite well. Jesus was hungry, and the devil said to turn stones into bread. This temptation is related to the basic instinct of eating while Jesus was in the form of a human. The Lord refutes the devil with a verse in Deuteronomy 8:3, "One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orth from the mouth of God."

Enraged, the devil shows Jesus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in their magnificence and offers those in return for worship. Jesus cites Deuteronomy (6:13), "The Lord, your God, shall you worship and him alone shall you serve." and firmly opposes the offer. Devil also tests Jesus to jump from the top of the Jerusalem temple, with a bible verse in Psalm (91: 10-12). Jesus counters with a verse in Deuteronomy 6:16,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Finally, the devil leaves Jesus to be back at some time.

Jesus uses Bible words to oppose all those temptations. We can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Word and the son of God coming to us through the Word. Our lives are a journey to live with God. Still, Jesus teaches us that if we are too absorbed in daily consumptions or worldly power, we get exposed to temptations. As human beings, temptations are natural; however, we should be watchful for temptations as we are blessed and re-born. The Word will aid us in refuting the temptations.

Fr. Paul Kim

교리상식 101

6. 미사 중에 독서자가 독서대에 오를 때 어디를 향하여 인사해야 하나요?

제대는 그 성당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제대를 본디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많은 성당에서 편의상 나무로 만든 제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의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로 제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의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로 제대를 만드는 전통은 제대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백성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흐른 바위는, 교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준 예표입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요한 19:34 참조) 지금도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표상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재현합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상징하는 이 피와 물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제대는 바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대가 우리에게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행 제사가 바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 제대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책받침대가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작과 성합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3/6 Sunday		3/8 Tue	3/9 Wed	3/10Thurs	3/11 Fri	3/13 Sun	
Mass Time	10am	3pm	7:30pm	10am	10am	7:30pm	10am	3pm
해설/ Narrator	박세실리아		김소화데레사	박분도	변리오바	김소화데레사	최안드레아	
독서/ Readers	김소화데레사 손데레사	M. Angel Esther Le Blanc					신모니카 김소화데레사	Cecilia Park Daisy Ramos
전례부/Altar Server	최클라라 박아가다	김마지아	박아가다	안세실리아	최클라라	김마지아	안세실리아 장바오로	최클라라
반주/Organist	김스콜라스티카	Juliana Cho	조율리안나	김미카엘라	김미카엘라	조율리안나	강실비아	Juliana Cho
봉헌/Offertory		Antoinette A. Cecilia Cosme						Antoinette A. Cecilia Cosme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저녁 9시 Zoom Meeting ID: 860 6709 3499 Passcode: 19713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지식(환희)	경외(빛)	군셈(고통)	의견(환희)
6	7	8	9	10	11	12
사목협의회(빛)	지혜(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13	14	15	16	17	18	19
사목협의회(고통)	양업회(환희)	사목협의회(빛)	성체조배회(고통)	셀 기도회(환희)	성경공부(빛)	성무일도(고통)
20	21	22	23	24	25	26
사목협의회(환희)	성령기도회(빛)	주일학교(고통)	제대회(환희)	재정위원회(빛)	전례부(고통)	사목협의회(환희)
27	28	29	30	31	4/1	2
사목협의회(빛)	레지오(고통)	지식(환희)	경외(빛)	군셈(고통)	의견(환희)	지혜(빛)
3	4	5	6	7	8	9
사목협의회(고통)	통달(환희)	효경(빛)	성가대(고통)	연령회(환희)	해설단(빛)	양업회(고통)
10	11	12	13			
사목협의회(환희)	전례부(빛)	성체조배회(고통)	전신자(환희)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정

주일 미사후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 봅시다.

3/6(일): 경외 3/13(일): 군셈 3/20(일): 의견 3/27(일): 지식 4/3(일): 지혜 4/10(일): 통달 4/15(금): 효경

※ 담당 구역은 각 처에서 기도하실 분을 미리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소식 / Parish News

- ◆ 구역모임 (Territory Meeting) Zoom
 - 효경: 3/7(월) 오후 7시
 - 의견: 3/11(금) 꽃동네
 - 통달: 3/12(토) 9:30 am- 3시pm/ 장소: St. Andrew's Abbey
 - 군샘: 3/17(목) 오후 7시
 - 지식: 3/21(월) 오후 7시
 - 지혜: 3/23(수) 오후 7시
 - 경의: 3/28(월) 오후 7시

- ◆ 평일미사 (Weekday Mass)
 - 남가주 사제모임, 남가주 MSC 사제모임 관계로 3/9(수), 3/17(목)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There will be no weekday mass on 3/9(Wed), 3/17(Thurs).

- ◆ 사순시기 복음묵상과 묵주기도
 - 기간: 3/2~4/13

-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3/6, 3/13, 3/20, 3/27, 4/3, 4/10
 - 이 기간동안에 주일미사 후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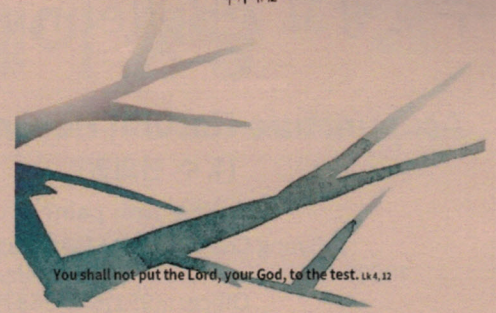
-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3/31

- ◆ 그룹 성경공부반 성전 앞에서 모집합니다.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복음)
 - 문의: 윤심포로사(성경봉사회): 951-966-5868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루카 4:12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2022 Envelope/DDF Pledge**

구역	교무금	DDF
경의	\$12,100	\$4,000
군샘	\$11,420	\$1,460
의견	\$14,000	\$1,100
지식	\$11,340	\$2,510
지혜	\$19,820	\$5,142
통달	\$7,920	\$1,360
효경	\$18,900	\$2,160
기타	\$480	\$480
합계	\$95,980	\$18,212

*** 71가정 신립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아직 2022년 신립서를 제출 못하신 교우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mit the pledge cards into the blue box at front of the lobby.

**2/27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848 (136명) 3pm: \$223(37명)
교무금 Envelope	\$2,370 이경애, 정에이미, 고명성, 박용옥, 박도원, 박규옥, 박종숙, 최병은, 오창수, 윤원균, 한현매, 김영희, 이동욱
교구발전기금 DDF	\$850 이동욱, 문현수, 정에이미, 고명성, 박도원
합계 Total	\$4,291



-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